



굿네이버스, 고창 주민 대상 아동학대 캠페인 펼쳐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는 고창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캠페인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를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현황 및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 및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방법을 안내했다.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위한 서명 참여가 가능하며, 전국 37개 굿네이버스 사업장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된다. /최아영 기자

전북대 안근영 대학원생, 방사선방어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안근영 박사과정생(플라즈마공학전공)은 방사선방어학회·지도교수 서희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학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안근영 대학원생은 '후방산란 X선 검색시스템 전산모사 모델 검증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문제탈로 전산모사 모델을 개발해 X선의 후방산란 기법을 사용하는 보안검색장비를 설계하고 전산모사 모델의 신뢰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산모사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수하물과 불법물품의 영상을 획득해 검색기의 성능예측 및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근영 학생은 "추후 연구를 통해 후방산란 X선 보안검색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완산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실무교육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는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완주군 이사면) 교육장에서 화재안전조사단 조사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4분기 화재안전조사단 실무교육'을 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조사단 점검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의 윤종모, 류인국 강사의 소방시설 분야 강의와 조사단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점검을 통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각 대원 개인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22. 12. 1.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령 개정 사항, 소방시설 점검방법 교육, 소방시설 작동원리 교육, 소방시설 전기·기계 분야 실습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김은경 전북환경청장, 만경강 바로알기 체험활동

김은경 전북환경청장청은 직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자연성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는 만경강을 돌아보며 만경강의 가치를 1일 체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경강 수생태복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체험하고 앞으로의 만경강 물환경 개선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은경 청장은 이날 현장감을 돌아보며 "호남의 젖줄인 만경강을 환경·치수·이수를 아우르는 전국 제일의 자연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좋은 환경서 공부하길”

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전북대 후배 위해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인 백창희 여수백병원장(85학번 졸업5회)이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의대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에 참여했던 백 원장은 이날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싶었다고 했다.

백 원장은 "지난 특강에서 후배들에게 나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그간의 노력과 경험 등을 들려주면서 학생들 눈빛에서 그 시절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선배로서 이들을 위해 그동안 생각해 머물러 왔던 일을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기부를 통해 전북대 의대라는 이름으로 나와 후배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사람으로 성장해 나가



고 모교 발전에도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원장은 그간 꾸준한 기부 등을 통해 전남 여수지역 의료계 최초로 아너소사이터에 가입했고, 그가 기부한 성금은 여수시 복지사업비와 의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정은성 기자

김숙희 법사랑 남원지구협 회장, '희망나눔 남원 1호'

남원시는 1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남원지구협의회 김숙희 회장이 남원시를 방문하여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작년에 이어 '희망2023 나눔캠페인'의 남원시 1호 기탁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김숙희 회장은 남원시 최초로 '아너소사이터(1억 이상 고액 기부자)'에 가입하였으로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김숙희 회장은 "경제위기 속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통절을 잘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김숙희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눔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663-620-6333)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경훈·조훈민 부자(父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조경훈·조훈민 부자(父子)가 1일 남원시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조씨 부자는 올해로 14년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과 나눔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역시 꾸준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었다.

기탁식에 참여한 아들 조훈민 씨는 "부모님께서 시작한 기부의 뜻을 이어받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시기에 더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직도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여건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말로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구 직원 대상 '나는 심폐소생술사다' 교육

완산구구청장 임익준은 직원 대상으로 생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교육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응급 사고에 시민, 가족, 동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사단법인 한국다미비레스큐팀 류승민 사무처장을 초청해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한 '흉부 압박, 인공호흡' 등 마네킹을 이용해 실습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완산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집중 교육했다. /김영태 기자



우석대 생활관, 안전교육 실시

우석대학교 생활관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가운래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행정팀 직원과 관생자치위원회 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골든타임 및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순서 및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AED), 심폐소생술 실습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웅(군사학과 4년) 제27대 관생자치위원회 관생장은 "이번 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연말연시 맞아 이웃사랑 실천 줄 이어

무주군에 연말연시를 맞아 물품과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어 추운겨울을 녹여 주고 있다. 1일 무주군청년정책협의회가 재능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 청년정책협의회 교육·소통분과 박용현 분과장과 위원들은 무주군청을 찾아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바라며 뜻을 모아 기탁했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청년정책협의회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인 단체로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하며 강연자 초청 프로그램, 지역 예비청년들을 위한 진로체험행사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수렴생 응원 나눔행사, 청년마루 1주년 기념 지역발전 모금행사 등을 벌이면서 지역사회 공원에 힘쓰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완주군에서 제빵부드를 운영하고 전주에서 아기웃가게 수슈엔크리를 운영하는 김민용·임주희 대표 부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면서 김장김치 3kg(150박스) 물품을 기탁했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추운 겨울을 맞아 고향인 무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작은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무주=전문기자



덕진소방서, 요양병원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덕진구 관내 요양병원을 찾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외상환자들로 구성돼 피난에 어려움이 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이에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덕진구 관내 벨엘요양병원과 예송요양병원을 직접 찾아 선제적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요양병원 화재 발생 시를 안내하며 병원장, 행정부장 등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을 당부하고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또 피난에 어려움이 큰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피난시설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화재 대피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시설인 만큼 관계자를 관심과 지속적 시설 관리 등 화재 예방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위아원' 역대 최대 규모 7만명 헌혈 마쳐

매년 겨울마다 혈액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동절기 시작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 7만 명의 헌혈을 마쳤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자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One, 대표 홍준수)은 지난 8월 27일부터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까지(11월 27일) 총 7만 명 헌혈을 목표로 헌혈 캠페인을 진행, 85일간 총 7만3,807명이 헌혈을 완료했다.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만 10만 360명으로, 이는 단체 헌혈 역대 최대 기록이다.

홍준수 위아원 대표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고귀한 봉사다. 헌혈에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아원은 혈액 수급난 극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